

월요광장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미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는 흥미로운 실험이 예시되고 있다. 원숭이와 팬더 그리고 바나나가 그려진 그림을 보여 주면서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시켜 보라고 했더니, 대체로 미국과 서유럽 출신 학생들은 원숭이와 팬더를, 동아시아 출신 학생들은 대부분 원숭이와 바나나를 서로 짝 지었다고 한다. 서양 학생들은 원숭이와 팬더가 같은 '동물'이라는 점에 주목한 반면, 동아시아 학생들은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와 비슷 한 여러 다양한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니스벳은 서양인들이 세상을 '명사'로 보는 반면, 동양인(동아시아인)들은 세상을 '동사'로 본다고 결론짓는다. 즉 동양인은 서양인보다 훨씬 더 실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분법적 도식화의 위험이 있지만, 여러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니스벳의 분석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다만 그것을 곧바로 동서양의 차이로 봐야 할지, 서양의 근대 이후 과학적 합리주의가 스며든 문화적 차이 정도로 봐야 할지는 의문이다. 세상을 명사로 보는 태도가 서양의 고대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하지만, 그 결정적 측면은 근대 이후의 과학적 사고에서 드러나기 때

동사로 보는 세상

문이다. 이 책의 저자가 서양인임에도 명사적 세계관의 서양보다 동사적 세계관의 동양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서양의 근대적 세계관에 대한 자기 성찰이기도 할 것이다.

명사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판단하는 주체로부터 객체를 엄격히 분리하여 관찰과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합리적 태도를 뜻한다. 이러한 과학적 사고의 견지에서 '나'라고 하는 (대)명사에 포착된 모든 세계는 사물(명사)화되어 파악된다. 근대 자본주의는 명사적 세계관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다.

자본주의적 교환가치(가격 매기기)에 의해 예컨대 인간의 추상적 '노동'조차 하나의 '상품'으로 명사화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서양의 명사적·과학적·합리적인 세계관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근대 이후 '사물화'가 초래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비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근대 비판의 관점에서 서양인을 스스로 관계론적 사고(동사적 세계관)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 역시 최근의 현상은 아니다.

적어도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특히 전후세대가 성장한 1960년대 이후 서양에서는 관계론적 사고에 대한 다양한 사유와 실천이 이루어졌는데, 그 핵심에 미학이 있었다. 서양 근대예술이야말로 명사적 세계관의 정수였기 때문인데, 미술관이 전시된 회화나 조각 작품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추상적인 예술이라 할 만한 음악조차 '오선보에 기록된 불멸의 작품'이라는 형식의 명사로서 이해되었다. 예술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이해한다는 것은 '작품'보다는 보고 듣고 느끼는 행위, 상호 관계 맺기의 참여 행위를 더 중시하는 것이다. 즉흥 연주나 즉흥 퍼포먼스의 경우 '작품'이 없

어도 참여자들 사이의 관계 맺기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다. 작품이 없다면 작가도 없을 터, 롤랑 바르트가 '저자의 죽음'을 천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예술을 '작품'(명사)보다는 '관계 맺기의 참여 행위'(동사)로서 본다는 것은 작가, 연주자, 감상자를 모두 예술적 창조 과정의 동등한 참여자로 간주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관계론적 사고 전환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장소의 재발견'이다. 작품보다는 참여 행위에 초점을 맞출 경우, '누가 참여하는가'라는 물음과 함께 '어디에서 참여가 이루어지는가'하는 문제 또한 부각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공공미술, 혹은 '장소특정적 미술'의 아이디어 또한 1960년대 서양의 관계론적 사고 전환(흔히 '문화적 전환'과 '수행적 전환'으로 일컬어지는)에서 비롯된 '장소의 재발견'과 관련이 있다.

일찍이 프랑수아 68혁명이 광범위한 평등주의 교육 체제 혁신을 이루며 책 속에 저장된 '명사로서의 지식'을 넘어 '동사로서의 체험 학습'을 중시한 것도 교육계에서의 관계론적·동사적 전환이었다. 이렇듯 여러 면에서 20세기의 서양인들도 '동사로 세상 보기'의 다양한 성찰적 차원을 보여 주었다. 그럼에도 최근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대한 개별 국민들의 대처에 있어서 대체로 동아시아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 모범을 보여 주는 것을 보면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가 새삼 옳은 듯하다. 그것이 이른바 '사회적 거리 두기', 즉 일상적 관계 맺기와 참여를 유보하는 일과 관련된다는 아이러니가 있지만, 그조차도 더 넓은 맥락의 관계 맺기를 위한 '동사로 세상 보기'의 지혜일 것이다.

기고



기영운 농협 구례교육원 교수

식당의 밥이 맛있었다. 흐린 형광등 불빛을 반사해 낼 정도로 쌀 한 톨, 한 톨에 윤기가 돌았다. 출장길에 들른 식당이지만 밥맛에 반해 일없이 파리채를 흔들고 있던 여주인에게 돈 많이 버시겠다고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돌아오는 대답이 마뜩찮다.

"손님이 있어야제, 통 사람 구경 하기 힘들어 브러" 그래서 내가 그 식당을 찾은 이유가 무슨 맛집 프로그램에 나와서가 아니라 근처에서는 그곳만이 유일하게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한때는 꽤나 번성했던 면소재지였는데 이제는 주민센터 앞으로 난 길을 따라 문을 열어 둔 가게들이 등성등성했다. "평일에 면사무소, 농협 직원들 점심 해주고 나면 없어"

늘어간 마을이 시나브로 소멸하고 있다. 농촌의 인구, 그 중에서도 기본적 마을 공동체인 행정리에 이어 면까지 매우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한국고

바보야, 문제는 소득이야

용정보원의 '지역별 인구 소멸 지수'(2020년 5월 기준) 발표를 보면 전남은 도내 22개 시·군 중 무려 18개 시·군이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다. 인구 구조상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에 비해 20~39세 여성 인구수가 지나치게 적으니 소멸이 전망만으로 그칠 것 같지는 않다.

지방 소멸은 출생률을 포함한 인구 유입의 문제다. 농촌의 출생률이 현저히 줄어들다 보니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 교육·의료·상업·문화 시설이 사라지고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의 원인이 된다. 악순환이다.

인구 유입을 늘려 농촌 마을을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귀농과 귀촌이 장려되었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마다 연례행사처럼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귀농, 귀촌의 열기는 시들고 있다. 최근 4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귀농·귀촌 인구가 왜 줄어들고 있을까?

농촌경제연구원의 '역귀농·귀촌 의향과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에 따르면 도시민이 농촌 지역 이주를 결심할 때 경제적 이유에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도시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19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에서도 50.5%가 귀농인들이 가장 크게 겪는 어려움은 '소득'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농사가 20%, 지역 인프라 부족은 18.4%였다.

농촌을 떠나는 농가의 살림도 팍팍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농가 소득은 4118만 원으로 2018년 4206만 원에 비해 2.1% 감소했다. 2016년 이후 3년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그중 농업 소득은 겨우 1000만 원에 턱걸이 했다. 반면에 농사를 짓기 위해 쓰는 영농비는 2417만 원으로 2018년보다 5.9% 증가했다. 농가 부채는 전년 대비 7.4% 증가해 3572만 원으로 늘었다. 사정이 이러니 농업 승계자가 있는 가구는 8.4%에 불과하다.

결국 문제는 소득이다. 농촌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소득이 낮으니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니 공동체의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 복지 시설 한두 개 갖는다고 돌아오지 않는다. 또 문화 시설을 들인다고 떠나는 사람을 붙잡을 수 없다.

농산물 시장이 전면 개방된 상태에서 농성이 경쟁력을 갖추고 농업 소득을 증진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전국민 재난 지원금의 위력을 보았다. 경제는 순환이다.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해법은 이미 제시된 셈이다.

때마침 농업인 기본 소득 도입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니 박수를 보낸다. 아울러 빠른 도입을 기대한다. 문제는 결국 소득이다.

기고



김정민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지금의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시대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하늘길, 바닷길, 육지 길, 그리고 돈같이 막히는 바람에 사람들의 마음 갈라져 막히고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2.5단계까지 선포되었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로 잠잠해졌다가 일부 사람들의 부주의로 다시 1.5단계가 발동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교회들이 팬데믹의 원인 및 대책은 물론 온라인(on-line) 예배와 오프라인(off-line) 예배를 놓고 논쟁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에 필자는 팬데믹에 대한 한국 교회의 통일된 근본 대책이 시급함을 느끼고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팬데믹을 통해 교회는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목적은 자기 피조물을 구원하는 일이며, 통치의 일차적 대상은 교회(성도)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신자들의 거룩한 삶과 안식을 위함입니다. 그것이 국가와 세계 평화의 근간이며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성육신하여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셨지만 가끔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하

팬데믹 시대 종교의 역할

님의 회초리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팬데믹의 회초리가 왜 발생했는지 그 이유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둘째, 예배당 중심의 예배가 아닌 참 삶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 교회가 가장 힘들어지는 일은 예배당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의 목표는 "거룩한 삶의 예배"에 있습니다. 의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능력을 부여받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당은 성도가 모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기도하고 연보하며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즉 예배당은 삶의 예배를 강화하는 의식적 예배의 처소요,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성도끼리 교제하는 신앙생활의 으뜸가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 중심의 활동은 신자들에게는 생명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이 지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연일까요?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생명처럼 중요한 예배 활동이 제한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드리는 예배 중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배관'을 제정하시기 위해 코로나19의 회초리를 들었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구원의 주로서는 성도의 몸과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예배는 장소적으로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

전은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인 신자(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훼손하는 일 자체가 예배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먼저 모든 도임을 당분간 삼가하고 실천하면서 안전 대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원리를 간과함으로써 계도해야 할 주도권을 국가에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 국가의 정책에 대해 교회를 탄압하는 일로 매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강단에서의 도덕적 설교를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인 복음을 선포하고, 성령의 간섭으로 사는 거룩한 삶의 원리를 소개해야 합니다.

셋째, '21세기 종교 개혁'만이 팬데믹 시대 종교의 역할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쫓겨났고,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말들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했고,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흠소셨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카인의 제사를 드리다가 세계를 떠도는 디아스포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잘못된 법과 제도를 고쳐 21세기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킵시다.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바뀌고, 그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합니다.

社說

엮친 데 덮친 격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막아라

전남 인접 지역인 전북 정읍의 육용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가금류 농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조류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6일 정읍의 농장에서 검출된 AI 항원을 정밀 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28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은 물론 사료 공장과 도축장 등 축산 시설 차량에 대해 전국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또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하는 한편 방역 조치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전남도 역시 차단 방역에 나섰다. 영암 종오리 농장에 방역 초소를 설치하고 도내 철새 도래지 20개소에 방역방제기, 살수차, 드론 및 시군·농협의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농가와 주변 도로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 중인 데다 우리나라에서도 전국 곳곳의 야생 조류에서 AI 항원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 담양 습지의 야생 조류에서도 H5형 항원이 검출돼 출입 통제와 함께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과 예찰·검사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엮친 데 덮친 격으로 전파력이 강하고 폐사율도 높은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가금 농가와 방역 당국의 긴장감은 더욱 조되고 있다. 특히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오리를 사육하고 있고 도래하는 겨울 철새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닭·오리 3300만 마리를 살처분해 국내 가금 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이르렀던 2016~2017년 AI 대유행 당시와 같은 참사를 피하려면, 농가와 도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소독 등 현상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정치권, 공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 서둘러야

광주 공공항 이전 문제가 장기간 답보 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광주·전남 지역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바꿔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부 대 양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새 공공항을 지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후보자인 무안·해남 등지에서 이미 '퇴짜'를 놓은 바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공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별법 개정은 공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수원과 대구 등에서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항 부지 개발 이익 중 일부를 이전 대상 지역에 투입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자치단체로서는 한계가 있어 이전 대상 지역과 지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보상을 해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전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선 민간 아파트 건설로 재원을 충당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난개발도 우려된다.

또한 현 특별법은 이전 부지 선정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국방부의 소극적인 자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이전 지역에 혜택을 늘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만이 해법이 될 수 있다. 광주와 수원·대구 시민단체 연대인 '공공항 이전 시민연대'도 최근 특별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켜 달라며 국회에 청원했다.

공정국회는 특별법을 2013년 제정했지만 7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역 정치권은 수원·대구 및 국방위 소속 의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無等鼓**

"본래 남자는 화성인이고 여자는 금성인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언어와 사고방식은 다를 수밖에 없다." 지난 2010년 출간된 이후 '연애의 바이블'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책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를 관통하는 명제다. 30여 년간 부부 상담센터를 운영해 온 저자 존 그레이박사는 "남자들은 화성에서 오고 여자들은 금성에서 왔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며 "서로의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존중해야 이성을 대할 때의 혼란스러움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사람의 뇌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 뇌의 기능적 연결망 또한 다르게 설계·작동되고 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진보적인 사람과 보수적인 사람의 뇌가 근본적으로 다르게 작동한다는 이야기에, 읽다 보면 '화성인은 진보 금성인은 보수, 또는 화성인은 보수 금성인은 진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연구 팀은 전국 성인 106명을 '보수, 중도, 진보 성향'으로 평가한 뒤 '뇌 영상촬영 기술'을 활용, 각각의 뇌 기능 네트워크

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냈다. 연구 결과, '보수 성향'의 사람들은 자기조절 능력이나 회복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뇌의 기능적 연결성이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보다 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보수 성향의 뇌는 '심리적 안정성'이 진보 성향의 사람보다 높은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슈에 대해 대립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진보는 사회적 평등과 같은 '공평성'을 중시하는 반면, 보수는 경제적 안정이나 안보와 같은 '조직의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는 특히 은 국민의 이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 극한 대립을 이어 가는 우리 정치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보인다.

존 그레이 박사는 "서로의 기본 환경을 이해하고 차이를 기억함으로써 서로의 잘못을 고치고 보다 생산적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남녀가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한다. 진보와 보수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할 이야기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